

음에도 불구하고 양돈불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사육두수를 조정한 반면 대규모 사육농가일수록 사육두수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6월중 산지에서는 자돈가격이 2만5천원에서 3만원선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가을철 성수기를 대비하여 자돈 입식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3~5월령의 육성돈 사육두수가 크게 증가된 것으로 보아 추석때의 육류 성수기에도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을 것 같다.

돼지사육동향(426개 농가)

(단위: 두)

월령별	월별	4월 (B)	6월 (C)	대비(%)	
	84.2월 (A)			B/A	C/B
총 사육두수	102,314	103,175	111,313	100.8	107.9
1~2개월령	41,048	35,251	36,049	85.9	102.3
3~4개월령	28,559	28,445	37,977	99.6	133.5
5~6개월령	16,480	24,176	20,176	146.7	83.5
번식활용돈(암컷)	12,217	11,822	13,154	96.8	111.3
후보돈(암컷)	1,315	1,703	1,707	129.5	100.2

모니터 통신



모니터조사보고서(제주지

부) 이정순 모니터

지난 8월 19일 제주지부에서는 운영위원회를 개최

주 토의안은 생돈가격 조정건인데 불황속에서도 비육돈 출하량이 소비량에 비해 부족현상을 빚고 있어 다소나마 가격을 인상 조정키로 했다.

이날 회의 결과 종전 생돈 1kg당 1,350원을 150원 올려 1,500원으로 결정했다. 또한 양돈협회 정보를 발송키로 결의했다.

검정위원회 개최

중돈능력검정위원회가 지난 8월21일 본회 한백룡 전무를 비롯한 6명의 검정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중돈능력검정소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2차 검정돈 경매결과 및 제3차 경매에 출품할 검정돈의 성적 보고가 있었고 이어 농장 검정 규정(안)과 경매 수수료 및 기금에 관한 토의가 있었다. 검정위원회는 현재 검정돈 출품자가 납부하는 위탁상장 수료를 현행 5%에서 3.5%로, 경매 낙찰자가 납부하는 중계 수수료를 현행 3%에서 4%로 조정하여 결정하였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9월5일에 경매에 부칠 검정돈을 심사했는데 L-14두, W-3두, D-7두 등 총 24두를 합격시켰다.

한편 중돈능력검정소측은 9월5일 실시할 검정 합격돈 경매에 일반 양축가들의 많은 응찰을 당부했다.

소비자가격 변동 : 정육 500g당 1,500원 실시

제주도는 돼지고기 연동가격을 결정고시 했다. 농수산부 훈령 제561호 규정에 의거 돼지고기 연동제 가격을 종전 500g당 1,200원 하던 것을 300원 올려 500g당 1,500원으로 조정 8월 23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제주지역에 돼지콜레라 발생

지난 8월 7일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동과 월평동 일대에 돼지콜레라가 발생하여 52두가 폐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지역 김노식 모니터

육류소비패턴 큰 변화

쇠고기 소비량이 줄어든 반면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소비량은 엄청나게 증가하는 등 육류소비패턴이 최근들어 바뀌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대구축산물도매시장의 도축수

와 시내 유명백화점의 육류판매량 조사에서 드러났다.

축산물 도매시장에 따르면 올들어 도축한 돼지는 하루평균 6백50여두로 3년전의 2백여두에 비해 3배이상 증가한데 비해 소는 70여두로 과거보다 25% 가량 줄었다.

돼지와 소의 도축두수증감은 돼지반입량이 정확하게 포착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소비패턴이 상당히 달라졌음을 증명하고 있다.

한편 대구시내 모백화점에 따르면 지난해까지만해도 하루 평균 매출량이 돼지(지육 55kg 기준)가 15두 내외였으나 올들어서는 60여두로 4배이상 증가했다. 소는 하루평균 5두 가량으로 수입최고기까지 포함한 지난해와 비슷하다.

닭고기는 하루평균 5백마리로 1년전의 2백여 마리보다 2배이상이 늘어났다.

시민들의 돼지고기, 닭고기에 대한 선호도가 크게 증가한 것은 쇠고기가 상대적으로 너무 높은 데다 돼지고기등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추석 앞두고 가격안정위해 특별단속반 편성 집중단속

경북도는 추석을 앞두고 육류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가격안정을 위해 26일부터 9

월 9일까지 소 5백40마리, 돼지 2천2백50마리를 단계적으로 계통출하하기로 했다.

기간중 돼지는 매일 1백50마리씩, 소는 26~30일까지는 매일 26마리, 31~9월 4일은 30마리, 5~9일은 52마리씩 축협과 농협을 통해 계통출하한다.

도는 이와함께 추석전후 부정축산물과 육류 가격위반행위가 많을 것에 대비, 각 시군별로 특별단속반을 편성, 가격표시제 이행상태, 밀도살 및 밀반출, 포장육 가공업체의 원료육반출 등을 집중단속한다.

신규회원 가입자명단

(84. 8. 25 현재)

인천지부: 최남식 최병유

마산지부: 김영심 이명수 구임모 정연화 유석철

포천지부: 여운정 강완구 홍종현 연구범 박기복

김상식 최윤희 박봉록 조창욱 김정겸

정환진 정관진 홍성진 박준수 정광영

이석덕 이승전 장영희 김태호 김정모

이규호 안영덕 이상완 이길오 김진모

김만성 한기영 김종배 김제도 김연창

이동춘 박원영 조용남 조만중 황인조

우동현 김용달 정희성 김선일 이희풍

총인원: 47명

용인지부 창립 현판식

지난 7월20일 10시 용인축협회의실에서 용인지부 창립을 위한 현판식을 거행했다.

이날 본회 한백용 전무를 비롯 양돈인 50여명과 관계기관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거행 되었는데 이날 용인지부 김현준 지부장은 인사를 통해 “문제점 하나하나라도 철저히 분석하고 화합할 수 있는 분기위와 어려운 여건속에서 회원의 슬기와 지혜가 모인 용인지부가 타 지부에 모범이 되고 일취월장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고 과거의 어떠한 문제라도 깨끗이 잊고 새출발 하자”고 했고 본회 회장을 대신한 한백용 전무는 치사를 통해 “용인지부가 민간주도로 성장 될수 있는 계기를 만들수 있도록 민주적 운영방법의 첫 걸음을 용인지부 회원의 힘으로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으며 이명복 경기도 협의회장은 “말로써만이 아닌 실질적인 행동으로 일을 처리하고 회원을 외면하는 조직이 되어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했다.